

한국 누정(樓亭)에 대한 위키백과 편찬 방안 연구*

- 누정 관련 한문학 유산의 편찬 방안을 중심으로

박순**

I. 머리말

전통 한옥 중에서도 누정(樓亭)¹⁾ 건축은 과거의 사대부들이 심신을 수양 하거나 자연을 완상하고, 지인들과 교유하며 학문을 논하거나 풍류를 즐기던 장소였다.²⁾ 이에 따라 누정과 관련된 시문(詩文)들이 많이 창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문학 유산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들 누정은 대체로 경관이 빼어난 곳에 위치해 있어 관광 명소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2030572)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말한다. 누각은 대체로 관(官)에서 건립한 공적 건물이며, 정자는 대부분 사적인 건물이다. 누각이 정자보다 규모가 크며, 정자는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누각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누각은 누대(樓臺)라고도 한다. 허균, 『한국의 누와 정』, 서울: 다른세상, 2009, p. 12-25; 이갑규, 김신곤, 김봉규, 『한국의 혼 누정』, 서울: 민속원, 2015, p. 11-13; 박연곤, 『한국의 누』, 서울: 대원사, 1991, p. 8-9 참조

2) 우응순, 『누정, 선비문화의 산실』,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p. 5-7 참조

사극 드라마나 영화 등의 촬영지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누정 건축은 현대인들에게도 친숙한 존재인데, 누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건물의 연혁과 건축 정보 정도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각 누정과 연관이 있는 한문학 유산을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한문학 유산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의 연결 링크도 찾아볼 수 없다.³⁾

현재 누정 관련 한문학 유산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으며 공신력도 갖춘 웹사이트는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인데⁴⁾, 여기에서 관심 있는 누정명으로 검색을 하고 관련된 한문학 유산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관련된 작품들이 일목요연하게 검색되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씩 확인을 하며 선별해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누정 관련 한문학 유산은 전문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감상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웹 환경에서는 쉽게 마주하기 어려운 단절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정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정보가 담겨 있고, 한문학 유산도 함께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구축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편찬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웹사이트를 구축할 플랫폼을 선정해야 하는데,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보다는 이미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위키백과(위키피디아)를 거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된다.⁵⁾ 위키백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3) 대표적으로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이트 모두 각 누정에 대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관련된 한문학 유산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하는 선비문화의 산실, 누정(<https://ncms.nculture.org/pavilion/>)은 각 누정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자세하고, 한문학 작품들도 조금씩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지만, 서술을 해나가면서 작품의 일부만을 인용한 정도여서 한계점이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전통문화포털(<http://www.kculture.or.kr/>)에서도 전통한옥과 관련된 상당수의 한문학 유산을 볼 수 있지만, 전통한옥 중에서도 주거·사묘·재실만을 다루고 있어서 누정에 관한 한문학 유산은 찾아볼 수 없다.

5) “위키백과 또는 위키피디아(Wikipedia)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언어판 인터넷 백과

있는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장점은 제작 및 유지 비용이 들지 않으며, 30분 정도만 학습하면 누구나 쉽게 문서⁶⁾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 위키백과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버 유지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고, 전문 프로그래머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특히 문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한문학 연구자들도 자신이 연구하고 분석한 바를 직접 웹페이지로 구현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4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일 것이다.)

또한 이미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구글 검색 시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든다면 이러한 장점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키백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잘 알려진 다수의 필자가 문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여 문서를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내용이 더 풍부하고 깊이 있어질 수 있는 것이다.⁸⁾ 물론 여러 사람들이 글을 작성하다 보니 내용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자의 승인을 거친 뒤에 내용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편집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위키백과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능을 보아도 크게 2가지 장점을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분류 기능을 이용하여 정교한 색인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퍼

사건이다. 2001년 1월 15일 지미 웨일스와 래리 생어가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집단 지성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어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위키백과’ 문서 참조

- 6) 본고에서 ‘문서’라고 칭하는 것은 일반명사로서의 문서가 아니라 위키백과에서 사용되는 공식 용어로서 한 표제어에 대한 단일 페이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서 ‘정약용’으로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 ‘정약용’ 페이지가 하나의 문서인 것이다.
- 7) 이수진, 「위키(Wiki)를 활용한 대학 인문학 수업의 디지털 글쓰기 교육」, 『문화와 융합』 38, 2016, p. 359 참조.
- 8) 정승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와 지식권력의 재구성」, 『인문과학』 106, 2016, p. 90-92 참조.

링크는 누구나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듯이 단어나 이미지를 클릭하면 연관된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기능인데 위키백과에서는 이것을 매우 쉽게 구현할 수 있다.⁹⁾ 이러한 기능으로 각종 문서 자료는 물론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와도 간단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류 기능은 SNS의 해시태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는데 위키백과 내의 문서에 색인화하고 싶은 분류들을 얼마든지 작성해 넣을 수 있고 이것들이 자동으로 목록화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¹⁰⁾

위와 같이 위키백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B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한국 누정에 대한 문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대부분은 한 단락 분량의 소개 글만 있는 정도여서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위키백과를 선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누정 문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편찬 설계도를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한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누정에 관한 한문학 유산을 위키백과 내에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를 참고점으로 삼아 누구나 위키백과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위키 작성 문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¹¹⁾

9) 간단한 예를 들자면 “목민심서의 저자는 정약용이다.”라는 문장에서 ‘목민심서’와 ‘정약용’에 대해 링크를 걸어주고 싶다면 위키백과 내에 해당 문서가 있는 경우 편집 화면에서 “[[목민심서]]의 저자는 [[정약용]]이다.”와 같이 해주기만 하면 된다(대괄호 2개로 묶어줌). 이를 내부 링크라고 하며, 위키백과 외의 다른 웹사이트와 링크를 걸어주고 싶은 경우(외부 링크)는 편집 화면에서 ‘[[웹사이트 주소] 정약용]’과 같이 대괄호 1개로 묶어주고 단어 앞에 웹사이트 주소만 넣어주면 된다.

10) 예를 들어 누정 문서에서 ‘박지원이 기문을 쓴 누정’을 분류 키워드로 넣어둔다면, 이러한 분류 키워드를 넣어둔 누정 문서 전체가 자동으로 목록화되고, 박지원이 기문을 쓴 모든 누정들의 목록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1) 위키백과 편찬 및 위키 소프트웨어 활용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적지 않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박성재, 『협력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효과적인 협력 학습을 위한 위키의 활용』,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7, 2013.

이수진, 『위키(Wiki)를 활용한 대학 인문학 수업의 디지털 글쓰기 교육』, 『문화와 융합』 38, 2016.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현재 위키백과 내의 누정 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표본 자료로 선정한 강릉 호해정(湖海亭) 관련 한문학 유산을 면밀히 분석할 것인데, 누정 관련 시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어야 위키백과 편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본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의 4장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누정 문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편찬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실제로 위키백과 문서를 작성한 결과물을 예시로 들어 보일 것이다.

II. 위키백과 내의 누정 문서 현황

한국어 위키백과는 주제별·유형별 카테고리 분류 같은 것이 없고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해당 문서를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 전통건축’이나 ‘누정’과 같은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누정명으로 검색을 해야 하지만, 어떤 누정 문서에 들어가 보더라도 가장 하단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대한민국의 누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누정들을 목록화한 표가 제시되어 있다.

정막래, 주동원, 「광주고려인마을의 발전을 위한 위키백과 구축 연구」, 『슬라브학보』 32, 2017.
 정필주, 「위키문화콘텐츠 사례 분석과 제작방안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9, 2013.
 주동원, 임영상, 「코리아타운의 활성화와 위키콘텐츠」, 『인문콘텐츠』 44, 2017.
 한중임, 「영어 쓰기 교육에서의 위키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활용 방안」,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18, 2015.

회루’ 문서를 보러 왔다가 서울에 있는 다른 누정에도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식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목록표는 이 대로 두고자 하며, 추가할 누정이 있는 경우 보충 작업만 해주면 될 것이다.

개별 문서로 들어가 보면 모든 누정 문서들이 어느 정도 규격화된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남의 “함양 군자정” 문서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¹⁴⁾



<그림2> 위키백과 ‘함양 군자정’ 문서 상단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자면 문서 제목 아래 ‘함양 군자정(咸陽 君子亭)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천리에 있는 정자 건축물이다. 2005년 10월 13일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제380호로 지정되었다.’라고 적혀 있는데¹⁵⁾, 누정의 위치와 언제 어떠한 유형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다른 누

14) 2020년 10월 16일에 확인한 내용이다.

15) 이 문장에서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과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내부 링크로서 해당 글자를 클릭하면 위키 백과 내의 해당 문서와 연결되는 기능이다. 위키 백과 내에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편집자가 의지만 있다면 문서 내에서 얼마든지 내부 링크를 걸어줄 수 있다. (일례로 개요의 첫 줄에 보이는 ‘정여창’은 위키백과 내에 해당문서가 존재하므로 내부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데, 현재는 되어 있지 않다.)

정 문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¹⁶⁾ 그리고 문장 뒤에 각주 번호 1번이 붙어 있는데, 각주 번호를 클릭하면 ‘각주’ 소제목 아래 적혀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문화재 지정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여기에서는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등 고시》)를 밝혀주고 있다.¹⁷⁾

‘개요’에서는 간단한 누정의 역사와 건축 정보 등이 기술되어 있고, ‘지정 사유’에는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짧게 설명해 주고 있다. ‘참고 문헌’에는 ‘함양 군자정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이라고 적혀 있는데, ‘함양 군자정’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의 ‘함양 군자정’ 문서로 이동하게 된다.¹⁸⁾ 실제로 확인해보면 여기의 ‘개요’에 문화재청 ‘함양 군자정’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오른쪽을 보면 가장 위에 함양 군자정의 좌표가 적혀 있고, 그 아래 ‘틀’에는 사진과 지도상의 위치를 볼 수 있게 하였다.¹⁹⁾ 위에서 보다시피 사진이 아직 없는데, 다른 누정 문서들을 보아도 사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도상의 위치 또한 아예 작성돼 있지 않은 문서가 더 많다.

‘참고문헌’ 아래에는 위에서 보았던 ‘대한민국의 누정’ 목록표가 이어져 있으며, 그 아래 최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분류’ 항목을 볼 수 있다.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색인 기능을 하는 것인데, ‘함양군의 문화재’를 클릭한다면 위키백과 내에서 ‘함양군의 문화재’로 분류 등록된 모든 문서들의 목록을 볼

16) 문장 아래 목차 표가 보이는데, 이 목차는 소제목이 4개 이상이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목차 내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소제목으로 넘어간다. 문서 내용이 긴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17) 각주 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각주 내용이 팝업처럼 화면에 띄워진다.

18) 그림 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함양 군자정’ 옆에 작은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이는 위키백과 외의 다른 웹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음(외부 링크)을 알려주는 것이다.

19) 위와 같은 위키백과의 ‘틀’은 대단히 유용한 기능인데,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같은 유형의 문서들에서 그대로 가져와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 기능이다. 위의 틀을 설명해보자면 누정명과 문화재 유형, 사진, 종목(문화재 종목), 수량(몇 채의 건물인지), 소유(현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 지도상의 위치, 주소, 좌표, 정보(해당 문서의 내용을 가져온 출처)를 기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수 있다.



<그림3> 위키백과 ‘함양 군자정’ 문서 하단

이상이 위키백과의 “함양 군자정” 문서 전체인데, 다른 누정 문서를 보면 거의 같은 형식을 띄고 있긴 하지만, 소재목들을 보면 ‘개요’만 있거나, ‘개요’ 뒤에 ‘본래 모습’·‘현재 모습’·‘평가’와 같은 소재목이 있거나, ‘명승 지정’이라는 소재목을 두고 여러 가지 역사적 에피소드를 기술해 놓거나 하는 등 목차 구성은 통일돼 있지 않다. 그리고 서울 경회루와 강릉 경포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서가 “함양 군자정”보다 내용이 짧으며 그 내용도 대개 문화재청 사이트에서 그대로 복사해온 것이다.

누정과 관련된 한문학 유산을 언급한 문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언급한 사례를 보자면 “강릉 경포대” 문서의 경우 “안축의 《경포대신정기》(鏡浦臺新亭記) 기문(記文)에 ‘옛날 영랑선인이 놀던 곳이며 정자가 없어 비비람이 치는 날 놀러 왔던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여겨 작은 정자를 지었다’라고 하여 창건목적을 밝히고 있어 역사성이 높다.”, “경포대 정자 내에는 율곡 이이가 10살 때 지었다는 「鏡浦臺賦」를 비롯하여 숙종어제시, 조하망의 상량문 등 여러 명사의 시문현판은 인문학적 가치가 높다.”라는 내용이 보인다.²⁰⁾ 기문의 일부 내용을 직접 인용하였고, 시문의 제목 및 저자 등을 밝힌 것이다.

“진주 축석루” 문서에서는 축석루의 의열을 칭송하는 영조의 시 전문(全文)을 제시해두었고, ‘다산 정약용은 팔검무(진주검무)를 추는 가인에게 〈무검편중미인(舞劍篇贈美人)〉이라는 시를 지어 헌사하였고,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를 지어 의기사에 걸게 하였다. 그 후 10년 후인 1791년에

20)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작품명의 표기 방식이 본고가 따른 방식과 다르지만 그대로 두었음을 밝힌다.

정조 15년에 30살의 나이로 진주목사로 있는 아버지에게 다시 들러서 〈재유 축석루기(再游臺石樓記)〉를 적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341개 누정 문서 가운데서 위와 같은 정도가 한문학 유산에 대해 언급한 전부라 할 수 있다. 위키백과의 누정 문서들이 대체로 빈약하지만 한문학 유산에 관해서도 거의 다뤄진 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위키백과의 문서 작성이 원고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연구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작성되어 있는 정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노력이 투여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서들마다 내용과 형식의 편차가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다만 위키백과의 누정 문서들은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상황을 가감 없이 살펴본 것이며, 본고의 4장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 표본 자료 분석: 강릉 호해정(湖海亭) 관련 한문학 유산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번 장에서는 위키백과 편찬을 위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이기 위해 누정 한 곳과 그곳에 관련된 한문학 유산을 표본 자료로 살필 것이다. 위키백과에 한문학 작품들을 열거해놓는 정도에 그친다면 굳이 분석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으나, 본고에서 지향하는 바는 한문학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해석도 위키백과에 담고자 하는 것이며, 내용 중에서 링크를 걸어두면 좋을만한 인명·지명·서명(書名)·개념어 등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누정 한 곳은 현존해 있는 문화재급 누정 가운데서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무방하겠으나 본고에서는 강릉 호해정(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2호)을 선정해 보았고, 호해정과 관련된 한문학 유산을 들어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²¹⁾

문체	제목	저자	출전
記文	호해정기(湖海亭記)	민우수(閔遇洙)	『貞菴集』 卷之九
	호해정기(湖海亭記)	윤봉조(尹鳳朝)	『圃巖集』 卷之十三
詩	호정잡영(湖亭雜詠)	김창흡(金昌翕)	『三淵集』 卷之十五
	호해정에 대해 짓다(題湖海亭)	이우(李瑀)	『玉山詩稿』
	이우의 호해정 시에 차운하다(湖海亭次李玉山韻)	김득(金功)	『栢巖集』 卷之二
	이우의 호해정 시에 차운하다(湖海亭次李玉山韻)	김창흡(金昌翕)	『三淵集』 卷之十五
	호해정(湖海亭)	이해조(李海朝)	『鳴巖集』 卷之一
	김창흡의 호해정 시에 차운하다(湖海亭次三淵韻)	이민보(李敏輔)	『豐墅集』 卷之二
	호해정(湖海亭)	조병현(趙秉鉉)	『成齋集』 卷之四
	호해정 주인에게 드린다(湖海亭贈主人)	송남수(宋楠壽)	『松潭集』 卷之一
	김창흡의 호해정 시에 차운하다(湖海亭次淵翁韻)	김귀주(金龜柱)	『可庵遺稿』 卷之三

<표1> 강릉 호해정 관련 한문학 유산

위와 같이 기문(記文) 2편과 시(詩) 9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먼저 민우수(閔遇洙, 1694~1756)의 「호해정기」 전문(全文)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었으며, 위키백과에서 링크를 걸어둔만한 단어들은 굵은 글씨로 표시해 보았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를 본 자는 웬만한 것은 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께서 이를 풀이하여 “본 것이 이미 크면 작은 것은 볼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천하의 물은 호수·강·실개천·도랑부터 저수지·못·산골 물·시내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또한 많은데, 이것들은 모두 각각 뛰어난 승경을 독차지하여 볼 만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어찌 한 번 바다를 본 것으로 자신의 소견을 대단하게 여겨 마침내 천하의 물을 폐기할 수 있겠는가?

21) 대상으로 한 출전은 『한국문집총간』이며, 누정에 부착된 주련(柱聯)이 있다면 마땅히 관련 한문학 유산으로 추가해야 하는데 강릉 호해정에는 주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강릉 호해정에 대한 모든 한문학 유산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문집총간』에 서만 자료를 모았지만, 이후 군지(郡誌)나 읍지(邑誌) 등과 같은 문헌에서 관련된 한문학 유산이 더 발견된다면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보안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위키백과의 큰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비유하자면 성인의 문하에 노닐면서 대도(大道)를 들어 천하의 말 중에 그의 뜻에 맞는 것이 없겠지만, 온유하고 돈후하며 명쾌하고 통달한 말이 이치에 합당하여 성인의 문하에 공로가 있다면 모두 취할 수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크다고 하여 마침내 그 말들을 폐기하여 들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기겠는가?

대저 물을 관찰하는 자는 반드시 천하의 물을 다 관찰하고 난 뒤라야 물의 이치를 모두 터득하여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되고, 말을 듣는 자는 반드시 천하의 말을 다 들은 뒤라야 말의 이치를 모두 터득하여 분명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만약 한갓 큰 것만 취하고 작은 것을 흘리한다면 이른바 큰 것은 미진함이 있게 된다. 대개 맹자와 주자의 말씀은 단지 대체를 논한 것일 뿐이니, 그 말만 가지고 뜻을 해치지 않는 것이 옳다.

내가 듣자니 강릉(江陵)의 경포대(鏡浦臺)는 큰 바다 부근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역을 형성하여 바다와 접하지 않은데도 승경이 빼어나고 훌륭하여 이에 적할 만한 게 거의 없다고 한다. 동해가 참으로 장관이기는 하지만, 경포대가 없다면 동해의 승경은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경포대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호해정이 있는데, 경포대에서 보면 호해정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호해정에서 보면 경포대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영동(嶺東) 사람들이 내호(內湖)·외호(外湖)라고 하여 각각 그 승경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동해를 보는 자가 장관이 동해에만 그친다고 여겨 경포대와 호해정의 승경을 아예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인의 문하에 노닐 자가 그저 성인의 말만 듣고 천하에 또한 사람들의 법이 될 만한 정언(精言)과 묘론(妙論)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호해정에는 옛날에 화려한 누각이 있었는데, 태허(太虛) 장호(張昊)가 창건한 것으로 들불에 소실되기는 하였으나 주춧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난 무술년(1718)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선생이 이곳에 이르러 제1의 명승지라고 단정하였는데, 호해정의 주인 신정복(辛正復)이 세 칸의 집을 지어 선생이 거처하는 곳으로 삼았다. 선생은 이곳에 거처하며 매우 좋아하여 문인 제자들과 함께 『주역(周易)』과 『시경(詩經)』을 강론하였으나 1년이 되기 전에 오대산(五臺山)으로 유람을 떠나 마침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 정자만이 홀로 우뚝하게 남아 있는 것이 30여 년이었다. 선생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이 정자에 올라 둘러볼 때마다 크게 탄식하는지라 주인이 서너 명의 제자들과 이곳에서 대략 선생이 계실 때처럼 강송하였다.

경오년(1750)에 또 화재로 소실되어 완전히 폐허가 되니, 정자의 주인은

이름난 정자가 잿더미로 폐기된 것을 아파하고, 또 전현(前賢)의 유적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였기에 정자를 새로 짓고, 후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문을 지어달라고 내게 부탁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호해정의 승경을 알고 있었으나 그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정자의 주인도 운사(韻士)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일면식도 없었으니 이 점이 한스럽다. 그러나 수백 리 밖에서 편지를 보내 매우 지성스럽게 요청하였기에 나 또한 거기에 이름을 의탁하는 것이 기뻐서 마침내 사양할 수 없었다.

옛날의 진원룡(陳元龍)은 호해지사(湖海之士)로서 호기(豪氣)를 떨쳐버리지 못했으나, 이것은 객기의 부림을 당한 것이어서 도를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된다. 그러나 이른바 객기라는 것은 대부분 그저 큰 것만을 사모하고 미세한 것을 살피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만약 크고 작은 것과 정밀하고 거친 것을 아우르고 빠뜨리는 것이 없다면 곧 지언(知言)과 양기(養氣)를 다 갖추어 그 기(氣)를 잘 사용하는 자라 할 만하니 이 사람이 참으로 맹자가 말한 호걸지사(豪傑之士)이다. 그렇다면 호해정의 호기(豪氣)는 반드시 도를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고 도리어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비록 질병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호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니, 세상의 좁스럽고 치졸한 것을 근심스럽게 본 지가 오래되었다. 다른 날 한 번 가서 동해의 험찬 파도와 내호·외호의 빼어난 풍경을 마음껏 둘러보고, 주인과 함께 누정에 올라 침상에 누워 맹자의 뜻을 주고받으며 객기를 사라지게 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발양한다면 이 또한 김창흡 선생이 후인들에게 바랐던 바일 것이다. 주인의 뜻은 과연 어떠하신가? 정자의 승경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말하지 못하겠고, 김창흡 선생의 시에 이미 잘 표현되어 있으니 이 시를 보는 자는 응당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²²⁾

22) 『貞菴集』第九卷. “孟子曰 觀於海者難爲水 朱子釋之曰 所見既大 則其小不足觀也 然天下之水自湖江川瀆以至蛟潭澗溪 其數亦多矣 是皆各擅其勝 無不有可觀者焉 何可以一觀於海 大其所見 而遂廢天下之水哉 譬如遊聖人之門 得聞大道 天下之言 無足當其意者 然其溫厚明達 合於理致 而有功於聖人之門 則皆可取之 何可以吾見聞之大 而遂廢其言 以爲不足聽哉 大抵觀水者 必盡觀天下之水 然後方可以盡其水之理而無不備矣 聽言者 必盡聽天下之言 然後方可以盡其言之理而無不明矣 苟徒取其大而略其小 則所謂大者 有未盡耳 蓋朱之言 只論其大體 不以辭害意可也 余聞江陵之鏡浦臺 濱於大海 自爲一區 不與海相接 而其瑰奇偉麗之勝 殆無其匹 東海固爲壯觀 而使無鏡浦臺 則東海之勝有未備也 自鏡浦十里而爲湖海亭 自鏡浦而觀之 則不知有湖海亭 而自湖海而觀之 則不知有鏡浦 嶺東之人 謂之內外湖 而各擅其勝者也 然則觀於東海者 以爲壯觀之止於此而不復知鏡浦 湖海之勝 則是何異遊於聖門者 徒聞聖人之言 不復知天下亦有精言

내용 중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단어는 ‘맹자’·‘김창흡’과 같은 인명, ‘강릉’·‘오대산’과 같은 지명, ‘주역’·‘시경’과 같은 서명, ‘경포대’와 같은 누정명이다. 이들은 모두 링크를 걸어두면 좋을 것인데, 위키백과에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내부 링크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외부 링크를 걸어주면 된다. 일례로 위 글의 필자인 ‘민우수’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에 해당 문서가 없기 때문에 관련 설명이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으로 외부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 것이다.²³⁾

다음으로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를 본 자는 웬만한 것은 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께서 이를 풀이하여 ‘본 것이 이미 크면 작은 것은 볼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동일한 문장(觀於海者難爲水)이 보이며, 주자의 집주(集註)에도 동일한 문장(所見既大 則其小不足觀也)이 보인다.²⁴⁾

(2) “옛날의 진원룡(陳元龍)은 호해지사(湖海之士)로서 호기(豪氣)를 떨쳐 버리지 못했으나, 이것은 객기의 부림을 당한 것이어서 도를 배우는 데에 방

眇論可爲人法者乎 湖海舊有畫閣 乃張別檢 吳 太虛之所 而盡於野火 礎切猶在 向者 戊戌 三淵 金先生到此 斷以爲第一名勝 而胡亭主人 辛上舍 正復爲縛屋三間 爲先生居宿之所 先生居此 甚樂之 與門人弟子講易論詩 未周歲而作五臺之遊 遂不復至 而其亭巋然獨留 蓋三十餘年矣 人之慕先生者 每登覽太息 而主人與數二學子 於此講誦 略如先生在時 庚午又失火 鞠爲荒墟 主人之意 既傷名亭之廢於灰燼 又恐前修之遺跡併至泯沒 乃重新棟宇 而屬余記之 以示後人 余久知有湖海之勝 而未能一至其處 亭之主人 亦知其爲韻士 而向未一識其面 此爲可恨 然馳書數百里外 請之愈勤 則余亦喜其托名於其間 遂不得辭也 古之陳元龍 湖海之士 豪氣不除 此不免爲客氣所使 有妨於學道 然所謂客氣者 多由於徒慕其大而不察於微細少也 使其合大小精粗而無所遺焉 則乃合於知言養氣 而方可謂善用其氣者 此真孟子所謂豪傑之士也 然則湖海之豪氣 未必有妨於學道 而亦豈不反有益也哉 余雖疾病侵凌 尚有豪氣之未盡剷除者 於世之齷齪猥瑣者 閱見久矣 他日一往 縱覽東海之壯觀與內外湖之奇勝 而與主人登樓臥床 上下孟氏之旨 以消餘客氣 而發其浩然之氣 則此亦金先生所望於後人也 未知主人之意 果何如哉 若亭之勝槩 余未嘗一登臨焉 且已具見於金先生詩語 覽者當自知之”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빌어 왔으며, 번역은 부분적으로 수정한 곳이 있음을 밝힌다.

23) 물론 위키백과 내에 “민우수”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내부 링크를 거는 방법도 있다.

24) 『맹자집주』, 성백효 옮김,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0, p. 429 참조

해가 된다.”: 먼저 “진원룡은 호해지사로서 호기를 떨쳐버리지 못했으니”라고 한 말의 출처는 정사 『삼국지(三國志)』에 보이며, 원문은 아래와 같다.

한(漢)나라 말 진등(陳登)은 자가 원룡(元龍)이고 광릉에서 위세와 명성이 있었다. 또한 협력하여 여포의 배후를 친 공적이 있어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더해졌는데 39세에 죽었다. 그 뒤 허사(許汜)와 유비(劉備)가 형주목 유표(劉表)와 함께 자리했는데, 유표가 유비와 함께 천하의 인재에 관해 논할 때 허사가 말했다.

“진원룡은 호해지사이나 호기를 없애지 못했습니다.”²⁵⁾

그리고, “이것은 객기의 부림을 당한 것이어서 도를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한 까닭은 위 인용문 뒤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서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비가 허사에게 물었다.

“그대가 호(豪)라고 말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허사가 말했다.

“예전에 전란을 만나 하비성을 지나가다 진원룡을 만났습니다. 원룡은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예의가 없었으니, 오랫동안 나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자신은 혼자 큰 침상에 누운 채 손님인 나는 침상 아래 누워있게 했습니다.”²⁶⁾

이에 유비는 큰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진원룡에게 사사로운 이익이나 얻고자 했던 허사의 태도가 문제였다고 반박하면서 진원룡이야말로 더없이 훌륭한 인재라고 평하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지만, 민우수는 허사의 태도가 어찌

25) 『三國志』卷7『魏書』<呂布臧共傳>: “陳登者 字元龍 在廣陵有威名 又犄角呂布有功 加伏波將軍 年三十九卒 後汜汜與劉備並在荊州牧劉表坐 表與備共論天下人 汜曰 陳元龍當胡海之士 豪氣不除” 원문은 陳壽, 『三國志』, 中華書局, 1959, p. 191에서 빌어왔으며, 번역은 진수 지음, 『정사 삼국지 위서』, 김원중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2018, p. 314-315를 참조하였다.

26) 위의 책. “備問汜 君言豪 寧有事邪 汜曰 昔遭亂過下邳 見元龍 元龍無客主之意 久不相與語 自上大床臥 使客臥下床”

됐건 위와 같은 행동은 객기의 부림을 당한 것이라 본 것이다.

(3) “이 사람이 참으로 맹자가 말한 호걸지사(豪傑之士)이다.”: 『맹자』 「진심 상」에 “문왕을 기다린 뒤에 흥기하는 자는 일반 백성이니, 호걸지사는 비록 문왕이 없더라도 흥기한다(待文王而後興者凡民也 若夫豪傑之士 雖無文王 猶興)”라는 문장이 보인다.²⁷⁾

(4) “맹자의 뜻을 주고받으며 객기를 사라지게 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발양한다면”: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감히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슨 장점이 있으십니까?’ ‘나는 남의 말을 잘 알며,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호연지기가 합니까?’ ‘말하기 어렵다. 이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함으로써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이 호연지기가 천지 사이에 꼭 차게 된다(敢問夫子 惡乎長 曰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敢問 何謂浩然之氣 曰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²⁸⁾라는 문장이 보인다.

(5) “김창흡 선생의 시”: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호해정에 대해 지은 <호정잡영(湖亭雜影)> 다섯 수를 말한다. 『삼연집(三淵集)』 권15에 수록되어 있다.

민우수의 「호해정기」 서술에 대해 분석해보자면 호해정의 ‘호해’라는 명칭을 ‘호해지사’와 연결하고, 이를 다시 ‘호걸지사’로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한 점을 주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진원룡은 호해지사로서 호기를 떨쳐버리지 못했으니 이것은 객기의 부림을 당한 것이어서 도를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 부분이 핵심적인데, 위의 (2)번 설명에서 그 출처를 자세히 살폈지만, 바로 이어지는 민우수의 서술을 보면 그의 본뜻은 진원룡을 깎아내리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호기가 있더라도 객기를 잘 다스린다면 도를 배우는 데에 도리어 보탬이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즉, ‘호해정-호해지사-호기’를 연결하

27) 원문과 번역은 성백효 옮김, 2010, p. 472 참조

28) 원문과 번역은 성백효 옮김, 2010, p. 114-115 참조

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걸림이 되는 허사의 진원룡에 대한 평을 ‘객기’로 정리하고, 이 객기만 잘 다스린다면 호기도 선비의 수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맹자가 말한 호걸지사이다.’라고 하였는데,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절대적인 존송의 대상이었던 맹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논의에 더욱 힘을 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날 한 번 가서 동해의 힘찬 파도와 내호·외호의 빼어난 풍경을 마음껏 둘러보고, 주인과 함께 누정에 올라 침상에 누워 맹자의 뜻을 주고 받으며 객기를 사라지게 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발양한다면 이 또한 김창흡 선생이 후인들에게 바랐던 바일 것이다.”라고 하여 ‘호해정·호해지사·호걸지사·호연지기’로까지 논리를 확장시켰다.

누정기는 대개 청탁을 받고 쓰는 글이며, 청탁받은 이는 누정과 누정 주인에 대한 적극적인 찬사와 세련된 의미 부여를 하기 마련인데, 민우수의 ‘호해정’에 대한 서술 또한 유명한 문장들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후손들이 마음에 담아둘만한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다음으로 누정기 말미에 “정자의 승경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말하지 못하겠고, 김창흡 선생의 시에 이미 잘 표현되어 있으니 이 시를 보는 자는 응당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된 김창흡의 「호정잡영」 다섯 수 전문을 보도록 하겠다.

月出多奇變	달이 뜨니 기이한 변화 많아,
勝於日出時	해 뜰 때보다 더욱 빼어나도다.
層層金塔涌	층층이 누런 달이 떠오르니,
湖面漾光遲	호수면에 뒤늦게 물빛이 출렁이네.

二子刺船去	두 사람 배 저어 가니,
煙波延碧虛	안개 속 물결이 푸른 하늘에 가닿네.
何須司鼓柁	어찌 뱃전 두드리는 어부와 같을 것 있으랴.

相望水儼如 서로 바라보니 신선된 듯하여라.

海月纖如鉤 바다 위 달은 갈고리처럼 가늘고,
殘星在其下 새벽 별이 그 아래 빛나고 있네.
來往白蘋洲 흰 마름풀 물가 오고 가는데,
興歸收網者 그물 거둔 이 흥겹게 돌아가네.

鏡湖三十里 **경포호** 삼십 리,
深不沒人肩 깊이는 사람 어깨도 빠지지 않는다네.
無復安危慮 다시 또 안위(安危)를 걱정하지 말게나,
船行興自全 배를 타고 다니니 흥이 절로 가득하다네.

藏船白蘋岸 흰 마름풀 언덕에 감춰둔 배,
船走入洪溟 떠내려가 큰 바다로 들어갔네.
爲報湖魚道 호수 물고기의 길 알려줄테니,
從容近我亭 조용히 내 정자(호해정)로 가까이오게.²⁹⁾

호해정 앞에 호수가 있었던 시대의 정취를 아름답게 그려내었다. 앞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민보(李敏輔, 1720~1799)와 김귀주(金龜柱, 1740~1786)가 이 시에 대한 차운시를 남겼는데, 두 사람 모두 김창흡의 몰년인 1722년 이후에 차운시를 썼을 것이란 점에서 김창흡의 사후에도 「호정잡영」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 시에서는 인명이나 서명, 개념어 등은 보이지 않고, 지명인 ‘경포호’가 언급되었는데 이 또한 링크를 걸어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밑줄 그은 부분은 고사(古事)가 인용된 것으로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굴원이 쫓겨난 후 강담(江潭)에서 노닐 때에 어부 앞에서 세상을 불평하는 말을 하자 “어부는 빙그레 웃고 뱃전을 두드리며 떠나가며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모자끈을 씻을 것이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내 발을 씻으리라.’(漁父莞爾而笑 鼓枻而去 乃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

29) 『三淵集』 第十五卷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빌어 왔다.

水濁兮 可以濯吾足)³⁰⁾라고 하였다 하며, 여기에서 ‘뱃전을 두드리며[鼓柁]’라는 말을 차용하여 시를 쓴 것이다.

김창흡의 「호정잡영」을 살펴본 결과 민우수의 「호해정기」를 분석한 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차운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 장르의 특성이기도 한데 위키백과 편찬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짚어보아야 할 중요 사항은 없으며, 호해정에 대한 나머지 한문학 유산을 보더라도 그러하기에 굳이 더 분량을 늘려가며 자료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겠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번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키백과 편찬의 실재를 보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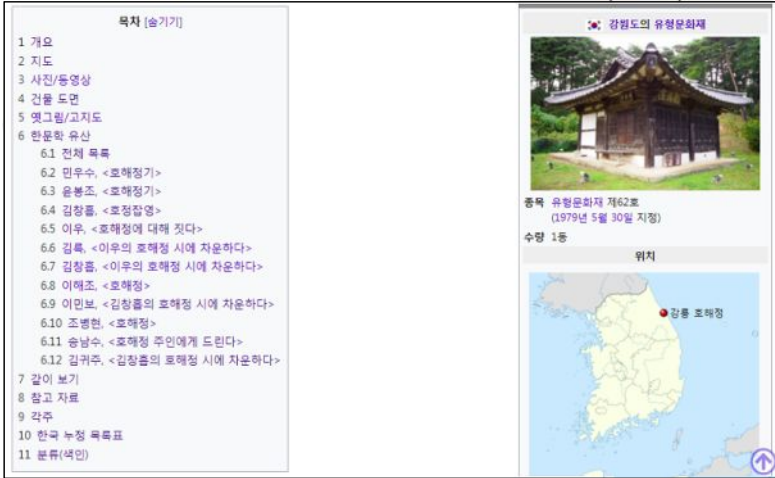
IV. 한국 누정에 대한 위키백과 편찬의 실제

위키백과 누정 문서 전체에 대한 설계는 기존 문서의 기본 형식(오른쪽에 대표 사진 및 한국 지도 내에서의 위치를 표시한 틀이 있고, 맨 아래에 ‘대한민국의 누정’ 목록표가 있는 형식)은 유지하되, 목차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문학 유산과 관련된 설계에 역점을 두었는데, 차후에 건축학 전문가나 역사학 전문가와 같은 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서 내용을 더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¹⁾ 본고에서 제시하는 누정 문서의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강릉 호해정” 문서를 예로 든 것이지만 이 목차 구성은 모든 누정 문서에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³²⁾

30) 원문과 번역은 굴원, 송옥 외 지음, 『초사』, 권용호 옮김, 서울: 글항아리, 2015, p. 223-224 참조.

31) 이것이 위키백과의 본래 취지에도 맞는 지향점이다. 아울러 꼭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누정에 관해 자신만이 아는 바가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여 문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2) 2020년 10월 19일 현재 “강릉 호해정” 문서는 2장에서 본 “함양 군자정” 문서와 거의 다를 바 없이 개요만 있는 정도였지만, 이를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그림4> 위키백과 “강릉 호해정” 문서 상단

목차의 소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되는 소제목 문단으로 이동하게 되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목차 1번부터 설명하자면 ‘개요’는 기존 문서에도 있는 사항인데, 누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장 위에 배치하였다. 누정에 대한 약사(略史), 건립자 및 중수자 소개, 누정 이름에 담긴 뜻,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 건축 정보, 특징적 면모, 현재 상황 등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³³⁾, 여기에 한문학 자료의 내용을 발췌해서 적절한 자리에 인용해 주면 훨씬 더 알찬 내용 구성이 되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민우수의 「호해정기」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과거의 호해정이 어떠한지를 추체험하게 해주는 문장으로 개요에서 소개되면 좋을 것이다.

내가 듣자니 강릉(江陵)의 경포대(鏡浦臺)는 큰 바다 부근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역을 형성하여 바다와 접하지 않은데도 승경이 빼어나고 훌륭하

33) 이 가운데 서술할 내용이 많은 경우가 있다면 ‘개요’ 아래에 별도의 목차를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A누정 문서에서 누정 이름에 담긴 뜻이 많은 사연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1.개요’, ‘2.누정 이름에 담긴 뜻’과 같이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다. 누정의 특성에 맞추어 목차 구성은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여 이에 짝할 만한 게 거의 없다고 한다. 동해가 참으로 장관이기는 하지만, 경포대가 없다면 동해의 승경은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경포대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호해정(湖海亭)이 있는데, 경포대에서 보면 호해정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호해정에서 보면 경포대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영동(嶺東) 사람들이 내호(內湖)·외호(外湖)라고 하여 각각 그 승경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겠다.

물론 지금의 호해정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조선 시대의 누정기에서 찬사를 표한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들어맞는 누정의 경우에는 더없이 좋은 추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누정의 역사에 대한 사실 정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인용하면 평범하게 누정 약사를 나열하는 것보다 더 구체성이 있고 근거 자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호해정에는 옛날에 화려한 누각이 있었는데, 태허(太虛) 장호(張昊)가 창건한 것으로 들불에 소실되기는 하였으나 주춧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난 무술년(1718)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선생이 이곳에 이르러 제1의 명승지라고 단정하였는데, 호해정의 주인 신정복(辛正復)이 세 칸의 집을 지어 선생이 거처하는 곳으로 삼았다. 선생은 이곳에 거처하며 매우 좋아하여 문인 제자들과 함께 『주역(周易)』과 『시경(詩經)』을 강론하였으나 1년이 되기 전에 오대산(五臺山)으로 유람을 떠나 마침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 정자만이 홀로 우뚝하게 남아 있는 것이 30여 년이었다.

이외에도 누정에 대한 시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 한두 편을 인용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과거의 사대부들이 해당 누정에 대해서 어떤 시를 지었는지 간략히 제시해 준다면 이용자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시가 주는 정서적 감흥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목차 2~5번(‘지도’³⁴⁾, ‘사진/동영상’³⁵⁾, ‘건물 도면’, ‘옛그림/고

34) 오른쪽 틀에도 지도가 있긴 하지만, 한국 지도 내에서의 위치만 보인 것이어서 좀 더 자세한 지도(해당 누정이 어떤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해 있고 주변엔 어떤 명승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지도)은 해당 누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들을 편성한 것으로 이러한 시각적 이해가 선행된 후에 목차 6번 ‘한문학 유산’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한문학 유산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전체 목록 표를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전체 목록			
• 각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작품을 볼 수 있는 문단으로 이동합니다.			
문체	제목	저자	출전
기문(記文)	호해정기(湖海亭記)	민우수(閔遇洙)	『정암집(貞菴集)』 권9
기문(記文)	호해정기(湖海亭記)	윤봉조(尹鳳朝)	『포암집(圃巖集)』 권13
시(詩)	호정잡영(湖亭雜詠)	김창흠(金昌勳)	『삼연집(三淵集)』 권15
시(詩)	호해정에 대해 짓다(題湖海亭)	이우(李瑀)	『옥산시고(玉山詩稿)』
시(詩)	이우의 호해정 시에 차운하다(湖海亭次李玉山韻)	김복(金劬)	『백암집(柏巖集)』 권2
시(詩)	이우의 호해정 시에 차운하다(湖海亭次李玉山韻)	김창흠(金昌勳)	『삼연집(三淵集)』 권15
시(詩)	호해정(湖海亭)	이해조(李海朝)	『명암집(鳴巖集)』 권1
시(詩)	김창흠의 호해정 시에 차운하다(湖海亭次三淵韻)	이민보(李敏輔)	『풍서집(豊墅集)』 권2
시(詩)	호해정(湖海亭)	조병현(趙秉鉉)	『성재집(成齋集)』 권4
시(詩)	호해정 주인에게 드린다(湖海亭贈主人)	송남수(宋南壽)	『송담집(松潭集)』 권1
시(詩)	김창흠의 호해정 시에 차운하다(湖海亭次三淵韻)	김귀주(金龜柱)	『가양유고(可庵遺稿)』 권3

<그림5> 위키백과 “강릉 호해정” 문서 한문학 유산 전체 목록

3장에서 보인 바 있는 <표1>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다른 누정 문서에서도 이와 같이 목록 표를 작성해두면 이용자가 해당 누정에 대한 한문학 유산의 전모를 파악하기 좋을 것이다. 표 위에 써둔 바와 같이 각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작품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두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³⁶⁾

있는 정도의 지도)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 35) 이 또한 오른쪽 틀에 대표 사진 1장이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더 만족감을 줄 것이다. 다만, 위키백과에서는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사진·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호해정 사진 보러가기’와 같이 표기해주고 여기에 외부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다. 이는 목차 2-5번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문학 유산들을 보일 차례인데, 민우수의 「호해정기」, 부분을 예로 들면서 한문학 유산에 대한 문서 편찬의 기본 원칙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림6> 위키백과 “강릉 호해정” 문서 ‘민우수, <호해정기>’ 부분 상단

위와 같은 체제로 한문학 유산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명과 시문 제목을 하위 제목으로 편집하여 목차에서도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목차에서도 특정 작품을 바로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³⁷⁾

2) 작품 전체를 사각형 테두리로 둘러싸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한다.³⁸⁾

- 36) 편집 화면에서 ‘[[민우수, <호해정기> | 호해정기(湖海亭記)]]’와 같이 적어주면 된다. 전체를 대괄호 2개로 묶어 주고, 수직선(|) 뒤에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수직선 앞에는 클릭하면 이동하게 될 곳의 단어를 우물 정자(#) 뒤에 써주는 것이다. (‘민우수’라고만 하면 문서 내에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민우수, <호해정기>’라고 시작하는 내용은 한 곳뿐이므로 이와 같이 해준 것이다.)
- 37)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자명과 제목이 목차에 보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주어야 가능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편집 화면에서 하위 제목으로 두고자 하는 내용을 등호 3개(===)로 묶어주면 된다. 참고로 소제목은 등호 2개(==)로 묶어준다. 즉, 편집 화면에서 ‘==한문학 유산==’, ‘===민우수, <호해정기>===’와 같이 적어주면 전자가 목차 번호를 만드는 소제목, 후자가 소제목 아래의 하위 제목으로 설정된다.
- 38) 이를 위한 위키 문법은 ‘{{인용문 AA }}’인데 ‘AA’ 부분에 테두리 안에 들어갈 내용을 넣

3) 테두리 내의 첫 줄에는 저자명과 시문 제목을 한자 병기로 써주고, 저자의 생물연도도 적어준다. 그리고, 저자명에 링크를 걸어 저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위키백과 내에 저자에 대한 문서가 있다면 내부링크도 가능)³⁹⁾

4) 시문 제목 옆에 ‘(한문 원문 보기)’라고 표기하고 한문 원문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원문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없다면 한글 번역문 밑에 한문 원문을 넣어준다.)⁴⁰⁾

5) 인명·지명·서명·개념어 등은 최대한 링크를 걸어준다. (위키백과 내에 문서가 존재하면 내부 링크,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웹사이트로 외부 링크를 걸어준다.)

6) 주석이 필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주석 내용은 각주에 적어준다. (각주에 들어간 내용은 목차 9번 각주에서 볼 수도 있지만,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본문의 각주 번호에 마우스만 갖다 대어도 내용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⁴¹⁾

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사각형 테두리도 생기지만, 테두리 안의 바탕색이 연한 회색을 띄어서 내용이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39) 머리말에서도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외부 링크를 거는 위키 문법은 링크를 걸 단어를 AA라고 한다면 ‘[웹주소 AA]’이며(대괄호 1개로 묶어주고, 웹주소 뒤에 한 칸을 띄워야 한다), 내부 링크는 ‘[[AA]]’(대괄호 2개로 묶어줌)와 같이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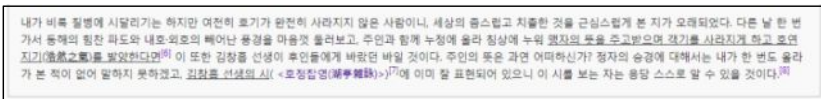
40) 시(詩)의 경우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시할 것이므로 ‘한문 원문 보기’와 같은 표기는 필요하지 않다.

41) 각주 번호에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하면 <그림>과 같이 보이고, 한 번 클릭하면 목차 9번 ‘각주’로 이동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각주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각주를 생성하는 위키 문법은 각주로 적어줄 내용을 AA라고 한다면, ‘<ref>AA</ref>’와 같이 해주면 되며, 각주 내용들을 모아두기 원하는 자리(“강릉 호해정” 문서의 경우 목차 9번 ‘각주’자리)에 ‘<references/>’라고 적어주면 본문에서 각주로 처리한 모든 내용이 이곳에 순차적으로 정렬된다.



<그림7> 위키백과 “강릉 호해정” 문서 각주 내용 보기

7) 본문 내에서 다른 한문학 작품이 언급되면 밑줄을 그어주고 괄호 안에 작품명을 써준 다음, 클릭하면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래의 <그림8>에 보이는 ‘김창흡 선생의 시’가 이러한 경우인데, 이는 김창흡의 <호정잡영>을 가리키고 본 문서 내에도 전문을 실어 두었으므로 클릭 시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해두었다.)



<그림8> 위키백과 “강릉 호해정” 문서 ‘민우수, <호해정기>’ 부분 하단

8) 본문 끝에는 번역을 참고했거나 원문을 가져온 출처를 각주로 달아준다. (위의 <그림8> 오른쪽 끝에 보이는 각주 8번이 이에 해당된다.)⁴²⁾

9) 시문 아래에는 되도록 시문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덧붙여주도록 한다. 이는 단행본이나 논문 등에서 관련 내용을 옮겨오는 방법도 있겠지만⁴³⁾,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 넣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예를

42) 각주 번호를 클릭하면 ‘8.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라고 적어둔 것을 볼 수 있다.

43) 물론 각주로 출처를 밝혀줘야 한다.

들어 본고의 3장에서 민우수의 <호해정기>에 대해 분석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위키백과에 담을 수 있는 것이다.

10) ‘<이우의 호해정 시에 차운하다>’와 같이 차운한 대상이 있는 시는 제목 아래에 ‘차운된 시 보러가기’와 같이 표기해주고, 클릭하면 차운된 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차운된 시의 제목 아래에도 ‘차운시 보러가기’와 같이 표기해주고, 클릭하면 차운시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상의 10가지 편찬 원칙은 모든 한문학 유산 장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목적은 이용자들이 각각의 한문학 작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키백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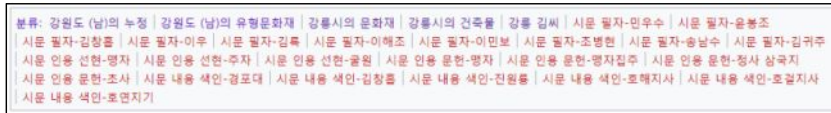
다음으로 목차 7번 ‘같이 보기’는 관련된 인물이나 누정 등을 적어줌으로써 지식의 연쇄적 확장을 의도한 것이다. 예컨대 호해정의 주인이었던 김습독, 장호, 김몽호 같은 인물이나⁴⁴⁾, 호해정의 인근에 있는 경포대, 방해정, 금란정 등의 누정을 밝혀준다면 좋을 것이다. 누정의 경우 위키백과 내의 해당 문서로 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고, 인물의 경우에는 위키백과 내에 관련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부 링크 및 외부 링크를 걸어준다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8번 ‘참고 자료’는 “강릉 호해정” 문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가 된 자료도 밝혀주는 것이지만, 본 문서 작성에 참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호해정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단행본이나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소개하도록 하며, 호해정에 대한 한문학 유산에 대해서도 관련 있는 참고 자료들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이때 논문이나 인터넷 자료는 해당 문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줘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9번 ‘각주’는 한문학 유산에서 각주를 걸어뒀던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정렬된 자리이며, 목차 10번 ‘한국 누정 목록표’는 2장에서도 소개하였듯이 위키백과 내의 모든 누정 문서들을 표 하나로 정리해 둔 것이다.

44) 한문학 유산의 저자들도 중요하지만 이미 앞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외부 링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 목차 순서인 11번 ‘분류(색인)’는 누정뿐만이 아니라 누정 관련 한문학 유산에 대한 색인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기존 “강릉 호해정” 문서의 분류 키워드는 ‘강원도 (남)의 누정’, ‘강원도 (남)의 유형 문화재’, ‘강릉시의 문화재’, ‘강릉시의 건축물’, ‘강릉 김씨’로 총 5개가 있었다.⁴⁵⁾ 5개 모두 합당한 키워드이고 다른 누정 문서를 보아도 대부분 이와 같은 유형(어떤 지역의 문화재와 건축물인지, 관리자는 어떤 문중인지를 키워드로 하는 방식)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키워드는 그대로 존속시켰으며 다음과 같이 한문학유산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완하였다.⁴⁶⁾



<그림9> 위키백과 “강릉 호해정” 문서 ‘분류(색인)’ 부분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새로 작성해 넣은 분류 키워드인데⁴⁷⁾,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시문 필자’, ‘시문 인용 선현’, ‘시문 인용 문헌’, ‘시문 내용 색인’의 4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추가한 것이다. 한문학유산을 ‘시문’으로 표기한 것이며, 이와 같은 4가지 요소는 한문학 유산과 관련하여 모든 누정 문서에 공히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시문 필자’는 관련된 한문학 유산의 필자들 모두 적어준 것으로 이것이 누정 문서 전체에 작성된다면 관련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시문 필자-김창흠’을 클릭하

45) ‘강원도 (남)’이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남한 영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란 의미이며, ‘강릉 김씨’는 현재 호해정의 관리자가 강릉 김씨인 김몽호의 후손이므로 이를 분류 키워드로 넣은 것이다.
 46) 분류 키워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추가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AA라고 가정할 때 편집 화면에서 ‘[[분류:AA]]’와 같이 써주면 된다. 키워드 개수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다면 ‘[[분류:AA]] [[분류:BB]] [[분류:CC]]’와 같이 계속 이어서 작성하면 된다.
 47) 활성화시키면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기존 키워드와 구분하기 위해 아직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이다.

면 김창흡이 시문을 쓴 모든 누정 문서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문 인용 선현’은 관련된 한문학 유산에서 문장이 인용된 선현들을 적어준 것이며, ‘시문 인용 출전’은 그 문장의 출전 문헌을 적어준 것이다.⁴⁸⁾ 이때 중요한 것은 시문 내에서 문장만 인용되고 그 화자인 선현이나 출전 문헌이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키워드로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색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키워드가 누정 문서 전체에 적용된다면 ‘시문 인용 선현-맹자’를 클릭했을 경우 관련된 시문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한 모든 누정 문서의 목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문 내용 색인’은 단행본의 말미에 실려 있는 색인과 같은 것인데, 시문 내용 중에서 색인화할만한 인명·지명·용어 등을 선별해놓은 것이다. 이때 앞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밝혀두었으므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을 명기해두고자 했다. 이 또한 누정 문서 전체에 적용된다면 ‘시문 인용 색인-호연지기’를 클릭했을 경우 관련된 시문 내에서 호연기기를 언급한 모든 누정 문서 목록을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누정에 관한 웹사이트를 열람했을 때 거의 대부분 건물의 연혁과 건축 정보 정도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특히 각 누정과 연관이 있는 한문학 유산을 볼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플랫폼으로는 위키백과를 선정하였으며, 누정 문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편찬 설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한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누정에 관한 한문학

48) <그림9>는 4가지 키워드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게 주목적이므로 번다함을 피하기 위해 민우수의 「호혜정기」와 김창흡의 「호정잡영」에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해 넣은 예를 제시한 것이다.

유산을 위키백과 내에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지에 대해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재 위키백과 내의 누정 문서가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부분의 문서가 한 단락쯤의 개요 글만 있는 정도이고, 한문학 유산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표본 자료로 선정한 강릉 호해정 관련 한문학 유산을 분석하였는데, 민우수의 「호해정기」와 김창흡의 「호정잡영」을 보면서 위키백과에서 링크를 걸어둘만한 인명·지명·서명·개념어 등은 무엇이 있는지, 고사를 인용하여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위키백과 편찬의 실체를 보였는데, “강릉 호해정” 문서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누정 문서에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 구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한문학 유산의 문서화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용자들이 한문학 유산을 열람할 때 본고에서 제시한 위키백과 편찬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당 누정에 대한 시각 정보(지도, 사진/동영상, 건물 도면, 옛그림/고지도)를 먼저 제시해줌으로써 글을 읽을 때에도 누정의 실체를 비롯한 누정 주변의 자연 경관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글을 읽기 전에 시각 정보를 둘러볼 수도 있고, 글을 읽는 중간에 내용과 관련되는 시각 정보를 바로 확인해볼 수도 있다.

둘째, 하이퍼링크를 통해 원하는 지식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는 3가지 차원으로 설정해두었는데, 먼저 필자에 대한 링크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⁴⁹⁾이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⁵⁰⁾으로 연결되어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문 원문 보기 링크는 한국고전종합DB를 비롯해 한문 원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와 연결되어 원문을 보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해당되는 한문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는 경우 본 위키백과 문서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49) <http://people.aks.ac.kr/>

50) <https://encykorea.aks.ac.kr/>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문 내용 중에 보이는 인명·지명·서명·개념어 등을 위키백과 및 관련 있는 사이트와 연결해두어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한문학의 특성상 고사가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밑줄을 긋고 각주를 달아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각주 번호에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관련 설명이 바로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내용 중에 다른 시문에 대해 언급한 경우에도 밑줄을 그어두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시문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언급된 시문을 보고 싶어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넷째, 시문 아래에 시문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덧붙여두어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키백과의 특성상 시문에 대한 분석 및 해설에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분야가 다른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⁵¹⁾

다섯째, 문서 내의 한문학 유산과 관련이 있는 참고 자료(단행본, 논문, 인터넷 자료 등)를 제시하도록 해두어서 보다 심화된 학습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 제시가 없다면 이용자들이 일일이 검색을 해서 관련 있는 참고 자료를 찾아내야만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자료를 못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의 목록 또한 한 사람이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보완해나간다면 더욱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분류(색인) 기능을 통해 연관 있는 다른 시문들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누정 관련 한문학 유산에 대해서 ‘시문 필자’, ‘시문 인용 선현’, ‘시문 인용 문헌’, ‘시문 내용 색인’의 4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모든 누정 문서에 적용된다면 편리하게 활용될

51) 진주완, 정철, 류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 사계절, 2018, p. 104-106 참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 제안한 편찬 방안대로 위키백과 누정 문서가 구축된다면 전문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누정을 즐겨 찾는 관광객 및 관광해설사, 체험학습을 위해 인근의 누정을 방문하는 교사와 학생, 누정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를 얻고자하는 문화계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위키백과 문서 작성 경험이 없는 연구자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므로 한문학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본고를 참고점으로 삼아 위키백과 문서 작성에 보다 많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누정, 한문학 유산, 위키백과, 강릉 호해정

[참고문헌]

1. 자료

- 『三國志』(中華書局, 1959)
『三淵集』(『韓國文集叢刊』 165집)
『貞菴集』(『韓國文集叢刊』 215집)

2. 단행본 및 논문

- 굴원, 송옥 외 지음, 『초사』, 권용호 옮김, 서울: 글항아리, 2015.
박언근, 『한국의 누』, 서울: 대원사, 1991.
우용순, 『누정, 선비문화의 산실』,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이갑규, 김신근, 김봉규, 『한국의 혼 누정』, 서울: 민속원, 2015.
진수 지음, 『정사 삼국지 위서1』, 김원중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2018.
진주완, 정철, 류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 사계절, 2018.
허균, 『한국의 누와 정』, 서울: 다룬세상, 2009.
『맹자집주』, 성백효 옮김,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0.
신승환,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해와 인문학」, 『인문과학』 116, 2019.
이수진, 「위키(Wiki)를 활용한 대학 인문학 수업의 디지털 글쓰기 교육」, 『문화와 융합』 38, 2016.
이영섭, 안남일, 「中國 古典의 상호텍스트성 試論」, 『인문과학』 110, 2017.
정승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와 지식권력의 재구성」, 『인문과학』 106, 2016.

3. 웹사이트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한국어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국문초록]

전통 한옥 중에서도 누정(樓亭) 건축은 과거의 사대부들이 심신을 수양하거나 자연을 완상하고, 지인들과 교유하며 학문을 논하거나 풍류를 즐기던 장소였다. 이에 따라 누정과 관련된 시문(詩文)들이 많이 창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문학 유산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들 누정은 대체로 경관이 빼어난 곳에 위치해 있어 관광 명소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극 드라마나 영화 등의 촬영지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누정 건축은 현대인들에게도 친숙한 존재인데, 누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건물의 연혁과 건축 정보 정도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각 누정과 연관이 있는 한문학 유산을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한문학 유산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의 연결 링크도 찾아볼 수 없다.

누정 관련 한문학 유산은 전문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감상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웹 환경에서는 쉽게 마주하기 어려운 단절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정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정보가 담겨 있고, 한문학 유산도 함께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구축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편찬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플랫폼으로는 위키백과를 선정하였으며, 위키백과 내의 누정 문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편찬 설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위키백과 내의 누정 문서가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표본 자료로 선정한 강릉 호해정 관련 한문학 유산을 분석하였는데, 위키백과에서 링크를 걸어둔만한 인명·지명·서명·개념어 등은 무엇이 있는지, 고사를 인용하여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위키백과 편찬의 실재를 보였다. “강릉 호해정” 문서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누정 문서에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누정에 관한 한문학 유산의 문서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Abstract]

A Research of Wikipedia Compilation Methods for Korean Pavilions*

- Focusing on the Compilation Methods of the Classical Literary
Heritage about Pavilions -

Park, Soon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n Yonsei University)

In traditional Korean houses, the pavilion was a place where the nobleman trained their mind and body, appreciated nature, communicated with acquaintances, discussed academic studies, and enjoyed art and culture. As a result, many literary works related to pavilions were created, and the pavilion remains a classical literary heritage that we can see today. In addition, since these pavilions are generally located in places with an excellent view, they not only function as tourist attractions, but are also widely used as filming locations for historical dramas and movies. Thus, pavilions are familiar to modern people as well, many of whom seek the history of pavilions and architectural information when searching related websites to learn more. However, they are not able to see the classical literary heritage associated with each pavilion, nor can they even find a link to a website where they can view the literary heritage.

The classical literary heritage related to pavilions can be considered a valuable asset that professional researche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can appreciate, but in the current web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find online. Therefore, it would be very useful if a website was built that contains diverse knowledge information about pavilions linking them to the classical literary heritage. Thus, in this paper, I tried to compile such a resource. Wikipedia was selected as the platform to build the database, and a systematic compilation design that can be applied to the whole document in wikipedia was suggested.

To this end, I first reviewed what Wikipedia is currently like. Next, I analyzed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B5A02030572)

literary heritage related to *Gangneung Hohaejeong*, which was selected for sample data, with a close examination of the names, place names, books, and conceptual words that were linked to Wikipedia, and considered which parts must be explained through quotations of classical tex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showed the reality of the Wikipedia compilation. Although the document “*Gangneung Hohaejeong*” was cited as an example, the composition of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collectively to all the documents on pavilions was specifically presented with an emphasis on documenting the legacy of the classical literary heritage on pavilions.

【Keywords】 Korean Pavilions, Classical Literary Heritage, Wikipedia,
Gangneung Hohaejeong

논문투고일: 2020.11.13 / 논문심사일: 2020.12.7 / 게재확정일: 2020.12.22.

【저자연락처】 soonislike@gmail.com